만남

12

2022
통권 586호

Merry Christmas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아동부 연합찬양제 '리틀스타 Little Star'★

제9회 아동부 연합찬양제 'Little Star(리틀스타)'가 지난 10월 23일(주일) 오후 5시, 베다니홀에서 찬양예배로 드려졌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찬양제에서는 유년부와 초등부, 소년부찬양대(소년부앙상블)에서 아름다운 찬양사역을 맡고 있는 150여 명의 어린 음악가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뜻깊은 은혜의 시간을 체험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교회표어

행진하여 가라
(신명기 1:6~8)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접속 **김운성**

04 2023 영락교회 목회 방향

크리스마스 특집
07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 시작되었나? **박선이**

다음세대
10 감사와 은혜의 2022년 **김상겸**

땅끝까지 이르러
12 영락교회의 지역사회는 주변 직장인입니다 **이의용**

영락의 울타리
14 함께 예배 그리고 교제 **이성재**
16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노년 **이광실**
18 달란트와 데나리온 이야기 **차영수**
23 소아 당뇨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지숙**

문화광장
26 2022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편집부**
28 『예수님께 뿌리내린 삶』을 읽고 **최은만**
30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박창조**
33 기후 위기 속 그리스도인의 역할 **김경민**
34 최후 만찬의 의미 **김에스더**
35 웹툰 〈크리스마스에는〉 **김초롱**
39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백정진**
42 천국 안내서 **박상엽**
43 참 빛 **박은숙**

교회소식
44 '추수감사주일예배 및 연합 찬양예배' 외
52 12월 목회력 /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표지설명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유치부 친구들의 찬양과 율동
2017년 12월 16일
유치부 성탄가족잔치

접속

김 운 성 위임목사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신명기 34:10)

신대원 1학년 때 학교 아래에서 자취하던 학우의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친구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학우의 집 책상에 커다란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컴퓨터였습니다. 전원을 넣으니 흑백 화면에 이상한 글자들이 나왔고, 그 학우가 플로피 디스크란 것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몇 번 손을 놀리자, 글을 적어 넣을 수 있는 '보석글'이라는 워드 프로그램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친구는 우리에게 한껏 자랑했습니다. 손으로 리포트를 작성하다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데, 워드 프로그램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신기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모두 컴퓨터라는 그 괴물을 사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후 컴퓨터를 사용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컴퓨터에 어둡습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은 하면서도, 고장이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습니다. 컴퓨터가 이상 증세를 보이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컴맹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컴퓨터를 실제로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프로그램에 이상이 생기거나 바이러스라도 침투하면 그때부터 컴퓨터는 제게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잘 모르다 보니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아서 저장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동식 하드 디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쓰지 않는 하드 디스크가 있어서 케이스만 사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만 원을 주고 케이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케이스에 하드 디스크를 넣으려고 하니 맞지 않았습니다. 연결하는 케이블이 전혀 달랐습니다. 나중에서야 하드 디스크도 연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요

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코드가 맞느니, 안 맞느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코드가 맞다'는 말은 케이블이 맞는다, 연결 방식이 맞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게 맞아야 연결되고, 연결되어야 기계가 작동합니다.

접속 케이블이나 코드가 맞아야 하는 것은 기계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접속이 원활해지려면 연결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딱 들어맞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코드가 맞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케이블이 하나님께 딱 맞습니까? 끼우면 정확히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접속된 사람

본문은 모세의 죽음 이후 그의 생애를 평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눈길을 끄는 구절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마주 보고 있었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맞추어 전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불량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하나님께 밀접하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던 인물입니다.

젊은 목사였을 때와 나이 들어가는 요즘을 비교하면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왕성하게 사역하는 목회자가 부러웠습니다. 설교 잘하는 분이 부러웠습니다. 널리 알려진 명성을 가진 분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교회가 빠르게 부흥하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소위 목회에 성공했다는 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과의 접속 상태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연결 코드가 맞는지, 하나님께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끼워 넣어 어느 때는 전원이 들어온 전구처럼 빛을 내고, 어느 때는 불이 꺼진 전구가 된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요즘은 깊이 기도하는 분이 부럽습니다. 유창한 언변은 없어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분이 부럽습니다. 달변은 아니어도 가슴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자가 부럽습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지는 못해도 성도들이 존경하는 목회자가 부럽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평생 삶의 색깔이 변함없는 진실한 목회자가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하나님께 정확히 접속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과의 접속이 끊어질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비스가산이 어디쯤일까요? 그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접속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이 저물어가는 12월입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제대로 접속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코드를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늘 접속되길 원합니다. 만남

소그룹 활성화로
영적돌봄·선교·봉사 감당

2023년을 맞이하는 영락교회의 목회 방향을 제안하며…

Ⅰ. 2023년의 교회 생태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처

영락교회가 창립 78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2023년은 여전히 교회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지속되는 코로나, 혹은 후유증

지속적 감염과 새로운 변종의 출현으로 인해 2023년에도 코로나의 공식적 종식 선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호전된다고 해도 후유증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2023년에도 지속될 코로나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고의 화두는 〈회복〉으로 무엇보다 신앙 회복이 절실하며 이는 예배 회복으로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장 예배로부터 멀어진 이들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현재의 출석 숫자로 한국 교회 규모가 재조정될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느 정도 교회 재정을 채웠으나, 오랫동안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의 온라인 헌금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일반적 현상 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의 붕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의 후유증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2. 사회문화적 변화와 영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회의 영적 구조의 변화

지금까지 영락교회는 두 축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하나는 교구와 구역으로 조직된 축으로 성도들을 구성하여 교제와 신앙 성장 및 돌봄을 위한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다른 한 축은 남녀선교회로 조직된 축으로 선교와 봉사의 사역을 담당해 왔습니다.

2023년 표어

“말씀따라 행진하라”

지금까지 영락교회 성도들은 구역에 소속됨과 동시에 남녀선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구역에서 교제와 신앙적 돌봄을 나누고, 남녀선교회에서 선교와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즉 영적 돌봄 조직과 사역 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성도가 두 조직에 동시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와 거리가 멀거나 분주한 삶으로 인해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세대 간 차이로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교구와 구역 조직 가동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 성도가 두 조직에 참여하는 구조를 한 성도가 한 조직에만 참여하는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조직이 영적 돌봄과 선교와 봉사 사역을 모두 다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대책은 소그룹 활성화입니다. 소그룹이 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격으로 여기는 이유로 첫째, 공동 관심을 가진 자발적 성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세대 간이나 환경 차이로 인한 거리감이 적습니다. 둘째, 두 조직에 참여하지 않고 소그룹에만 참여하기 때문에 시간적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교구와 구역 조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그룹 활성화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다양한 소그룹 장려
- ▷구역이나 교회 내의 다양한 모임과 관심사, 연령별 소그룹 등 형성
- ▷소그룹 대상의 말씀과 묵상 및 인도와 관련된 교회 지침 제시
- ▷교구와 구역은 성도 구성, 심방, 경조사 등 돌봄 기능을 담당하고, 소그룹은 영적 욕구 충족을 담당
- ▷교구 담당 교역자는 교구 내의 모든 소그룹을 관리 및 지도
- ▷소그룹이 선교와 봉사의 사역에 참여(장기적으로는 현재 남녀선교회의 선교와 봉사를 소그룹이 대체하도록 지향)

3. 80주년 비전을 향한 지속적 전진

교회창립 80주년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2023년에는 다음의 몇 단계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구체화 : 각 분과의 사업을 점진적으로 구체화
▷확산 : 지속해서 홍보하여 관심을 이끌고 기도와 헌금에 참여토록 함
▷조정 : 분과 간의 일정, 공간, 재정 사용 등에 관한 지속적인 조정 필요
▷착수 : 확정된 일정부터 단계적 진행
▷맡김 :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한 믿음의 태도로 자발적으로 순종

Ⅱ. 영락교회 2023년 표어 : "말씀 따라 행진하라"

❖ **성구**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민수기 9:23)

❖ **설명**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표어인 "행진하여 가라"에 이어, 80주년을 향하는 마음을 담아 2023년도 표어에 '행진'이라는 개념을 넣었습니다.

교회학교와 각 부서에서는 표어를 중심으로 2023년도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지속했던 사업 중에서 의미가 줄었거나,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여 예산과 시간,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Ⅲ. 기타 사항

1. 예배와 기도 등 기본에 충실하도록 인도합니다.
2. 예배 전 찬양을 활성화합니다.
3. 〈영락오이코스Ⅱ-말씀 따라 행진하라〉를 진행합니다.
4. 개인전도 활성화 및 새가족 정착을 위해 노력합니다.
5. 다음세대와 노년 세대를 위한 사역을 균형 있게 수립합니다.
6. 교구별 모임과 활동의 활성화 장을 마련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 시작되었나?

50주년기념관 앞 베다니광장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11월 19일 서울시청 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다. 우리 교회도 11월 27일 본당과 베다니광장에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점등식을 가졌다.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뿐 아니라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나타난다. 집에도 크고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한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 왜 생겼을까? 그리고 어떤 연유로 별 장식, 둥근 공 장식을 거는 것일까?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전나무를 사서 끌고 가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조 나무가 훨씬 더 널리 사용되지만,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오랫동안 크리스마스 트리 수출로 유명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 마르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트리의 창시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15세기 독일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영국 작가 주디스 플랜더스가 쓴 『크리스마스: 전기(Christmas: A Biography)』는 중세 독일 교회 서류까지 인용하여

크리스마스 트리의 역사와 의미를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트리 시장은 독일 남서부 라인란트, 지금은 프랑스 땅인 알자스의 스트라스부르 바로 위에 있었는데, 이 지역의 전나무가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진 침엽 상록수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조'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다는 둥근 공의 원형은 사과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담과 이브의 행복했던 시절을 보여주는 '낙원극'(Paradise Play)을 공연하는데, 전나무 가지에 사과를 묶어 지혜의 나무를 표현했다고 한다. 이때 나무를 털실, 사과, 견과류와 프레첼로 장식했다는 서류가 남아있고, 1419년, 독일 프라이부르그의 한 직업인 조합(길드)이 사과와 과자, 양철, 생강빵으로 나무를 장식했다는 기록도 있다. 독일령이거나 한자동맹 권역에 있던 나라들로도 퍼져, 1441년 에스토니아 탈린에, 1510년 라트비아 리가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다는 기록도 있다.

빅토리아여왕과 앨버트공, 자녀들이 함께 등장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쿨리지 대통령 때 시작된 미국 백악관의 '국립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는 고향인 독일을 떠나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다. 미국에서는 1805년 모라비아 선교회가 운영한 아메리카원주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에 사용할 작은 상록수를 가져오라고 한 기록이 남아있고, 19세기 텍사스의 독일이민가정에서는 이끼와 면화, 호두, 붉은 고추, 팝콘으로 나무를 장식하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낯익은 크리스마스 트리 역시 독일계 인사를 통해 전파되었다. 1848년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는 빅토리아 여왕과 남편 앨버트공,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모여선 사진을 실었는데, 독일 출신인 앨버트공이 영국에 크리스마스 트리 전통을 가져온 것이다.

대형 트리의 전통

공공장소에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전통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1923년 12월 24일 쿨리지 대통령은 고향인 버몬트에서 가져온 18m 높이의 전나무에 2,500개의 전등을 장식하고 '국립 크리스마스 트리'로 명명했다. 뉴욕 록펠러센터의 상징으로,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

록펠러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5만개의 LED등으로 장식했으며 점등식 티켓이 인기라 구하기 쉽지 않다

는 6m 높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1931년 처음 세워졌는데, 대공황 시대 수많은 실업자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요즘은 번화가의 대형 상업 시설들이 '크리스마스 특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앞다퉈 대형 트리를 장식한다.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십자가를 단 것을 두고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지나친' 기독교 상징이라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자체가 기독교 문화인데 십자가가 '지나치다'는 것은 넌센스로 느껴진다. 별은 전나무 숲 위쪽 하늘에 뜬 별을 상징하기도 하고 아기 예수 탄생지로 동방박사를 이끌었던 별을 상징하기도 한다.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린 천사들을 연상해 천사 장식을 달기도 한다. 꼭대기에 무엇을 달든, 나무에 무슨 장식을 걸든, 크리스마스 트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을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상징으로 의미가 깊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남

박선이 집사 _ 홍보출판부 선임편집위원, 강남교구

2022 영락교회 성탄트리 점등식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11월 27일 대림절 첫번째 주일 오후 창립 77주년 기념음악회 후 전교인이 모인 가운데 베다니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교회 곳곳에는 복된 성탄절의 희망을 담아 불을 밝혔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망이 가득한 성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감사와 은혜의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12월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매년 그렇듯 조금씩 겨울이 다가올 때면 '나는 금년을 잘 지냈는가?' 생각하며 한 해를 되돌아 봅니다. 이런 생각들은 매년 하는 연례행사와 같았지만, 특히 올해 들어 신경 쓰이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저는 지나친 자유로움과 게으름으로 인해 육체는 물론이고 신앙까지 나태해지며 영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나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살고 여러 이유를 핑계로 온라인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제게 하나님은 2순위, 3순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자유는 자유라는 탈을 쓴 게으름과 방탕함이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닌 진지한 대화를 위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김상겸 성도
청년부 꿈꾸는 땅 조장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말씀은 동행과 순종이었습니다. 동행과 순종의 말씀을 들고 2022년을 보내면서 놀라웠던 점은 부족한 저에게도 섬김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곧 감사함이 찾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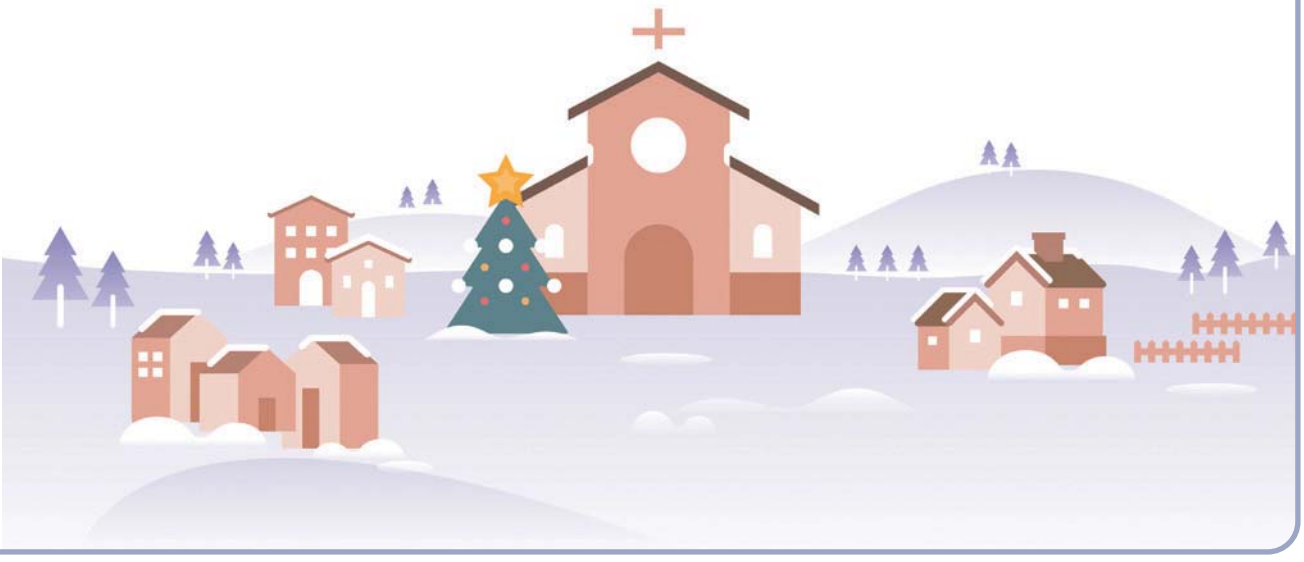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기억에 남는 감사가 3가지 있는데, 첫째는 부서 모임의 조장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원들을 보면서 섬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섬김이라는 것이 그저 낮은 위치에서 타인을 받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장으로서 '뭔가를 가르치고 시도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막연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원들과 함께 주일을 보낼 때마다 모두의 헌신과 즐거운 나눔을 보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동반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제대로 된 섬김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겨울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새벽까지 계속되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는 미지근하던 저의 영성을 다시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많은 지체가 합심해서 기도와 찬양하는 모습이 참 좋았고 교역자들과 찬양단, 준비하신 모든 분의 헌신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뜨거운 마음과 열정에 대해 은혜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기선교를 통해 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찬양을 듣다가 즉흥적으로 신청한 하기선교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제가 부팀장으로 헌신할 기회를 얻었고 많은 동역자를 만나 함께 기도하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으며 하기선교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루어가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놀라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많이 바빴던 하기선교 기간이었지만 그만큼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3가지 감사한 일 외에도 선교비전, 꿈꾸는 땅&모리아 연합수련회, 부서 자체의 여러 행사와 아우팅 등 보고 느낀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교회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중에 성경에서 왜 공동체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공동체에서 동역자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과정, 서로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는 경험 등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면 2022년은 교회가 즐겁고 주일이 기대되는 해였습니다. 금년은 유례없을 정도로 잘 지낸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2년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2023년에도 계속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만남



영락교회의 지역사회는 주변 직장인입니다

– 직장인 금요정오예배 창립 53주년

영락교회 직장인 금요정오예배가 지난 11월 첫 금요일(4일) 창립 53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운성 위임목사님이 설교해주셨습니다. 직장인예배는 1969년 9월 5일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남대문교회(1978년), 종교교회(1980년), 서소문교회(1983년), 정동제일교회(1984년), 새문안교회(1985년) 등으로 되었습니다. 직장인예배는 일터의 직장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쉼터이자 영적 충전소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아가 각 직장 신우회 활동에도 든든한 백그라운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직장인예배 53년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는 1997~98년 IMF 구제금융 신청 때였습니다. 옛 선교관에서 500여 명이 모였던 우리 직장인예배도 많은 이가 직장을 잃으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19년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다시 상승기를 이루려 했는데, 불과 두 달 후인 2020년 2월에 코로나19로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13일 드디어 예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많던 예배자들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한 결과 지금 90명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직장인예배가 햇수로는 53주년이지만, 창립 1주년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창립 53주년 기념예배 때 김운성 목사님이 "소수로 살아가자!"라고 하신 설교 말씀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소수'가 '누룩'이 될 때 더 많은 직장인이 모여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53주년을 앞두고 네 차례에 걸쳐 1,800명에게 전도지를 건넸습니다. 전도지를 받는 이들로부터 들은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영락교회가 어디 있어요?"였습니다. 영락교회의 지역사회는 어디인지, 그들에게 영락교회는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락교회의 지역사회는 주택환경이 아니라 직장환경입니다. 퇴근 후에는 불 꺼진 건물들뿐입니다. 영락교회의 지역사회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공인들과 직장인들입니다. 점심시간에 빌딩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직장인과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영락교회의 지역사회는 직장인 황금어장입니다

저는 비록 다른 교회 소속이지만, 직장인예배에 가장 오래 참여해왔고 가장 많은 은혜를 누려왔기에 그 고마움과 함께 몇 가지 고언을 드려봅니다.

첫째, 영락교회의 지역사회가 직장인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둘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밀한 중·단기전도 전략을 세웠으면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직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의 특성과 필요를 철저히 분석했으면 합니다. 일반 교인들과 크게 다른 그들의 특성과 필요를

선교관에서 드리는 직장인 금요정오예배

파악해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교회가 각 직장의 유력한 신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이 신우회를 결성하고 운영하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다섯째, 직장인 선교는 이제 해외 선교처럼 어려워졌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전도지를 권해보면 그걸 느낄 겁니다. 열심과 전도 기술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전문성을 갖춘 직장인 선교사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전도부뿐 아니라 여전도회와 남선교회가 연합작전을 펴야 합니다.

이런 점에도 염두를 두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동서남북의 울타리를 허물고, 마당이나 광장에 공원도 꾸미고, 차 한 잔 나눌 공간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비신자들을 위해 콘서트나 직장인 강좌도 열면 좋겠습니다.

영락교회 직장인예배를 위해 몇 가지 건의합니다.

첫째, 직장인예배를 왜 운영하며, 예배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배 참석자들은 영락 교인이 아니라 초대된 '손님들'입니다. 예배 시간은 짧고, 서로 잘 알지 못하며, 약속이 생기거나 일이 바쁘면 안 나옵니다. '아직' 신자가 아닌 이들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예배 후 김밥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다른 교회 직장인예배와 비교가 됩니다.

셋째, 직장인 선교는 특수 선교입니다. 전도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야 하고, 메시지도 달라야 합니다. 2030세대도 찾고 싶은 곳이어야 합니다. 특수 선교를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교역자가 전문성을 갖고 전담하면서 직장 내 신자들을 찾아가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야 합니다. 교역자도, 안내자도 2년마다 바뀌는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끝으로, 인근 직장인들 뿐 아니라, 교회 내 직장인에게도 직장인예배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희 예배 참석자들도 직장인예배가 직장인 전도에 '누룩'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만남

이의용 장로
일산충신교회
직장인예배 지휘자

함께 예배 그리고 교제

영락교회 울타리에서 지낸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왔던 2019년도를 회상하니 대학부 교육전도사로 청년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서로 사랑했던 시간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겨울수련회, 여름수련회, 해외비전트립 등 이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전에서 함께 떡을 떼며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놀라운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을 지나며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발생했고 2020년 사역들이 미뤄지거나 취소되었습니다. 해외비전트립 취소, 수련회의 장소와 날짜 변경 등 일련의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닥친 어렵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교회 문이 닫혔다 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참석 인원수의 제한으로 예배 위원들만 예배당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할 찬양 소리는 줄어들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는 모임은 제한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19 대작전과 한 친구(179)운동을 예비하셨고 놀랍게도 이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개입과 다스리심이셨습니다. 빛 되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서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성재 전도사
강북·도봉교구
청년부

이렇게 코로나의 긴 터널을 달리며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영락교회 표어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였습니다. 표어를 볼 때면 소망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쳤던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가 가득 맺힐 것이 믿어졌습니다. 거리 두기는 완화되었고 제한됐던 모임도 온라인을 시작으로 점차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365〉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지속되었지만, 하나님은 예배와 교제를 통해 위로와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며 기쁨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2022년, 여전히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저는 전임전도사로 지원했고 교구와 청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전 코로나 기간에 진행할 수 없었던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많은 일 중 2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청년부 하기선교봉사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시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 상황에 선교가 가능한가? 청년부 내에서 질문과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

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코로나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청년이 매일 교회에 모여서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교회 전체가 선교에 관심을 두고 중보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출발 날짜가 다가왔고, 청· 장년으로 함께 구성된 사역팀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충남 보령, 홍성 땅을 밟았습니다.

4박 5일 동안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울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 때문에 웃고, 사역을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신 것을 깨달아 울고, 어려울 것 같던 사역들이 이루어짐을 보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발견하고 웃었습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선교팀은 한 공간에서 함께 자고, 먹고,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며 기도했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습니다.

그다음 기억에 남는 것으로 만남주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베다니광장 각 교구 부스에 오셔서 떡을 나누며 그간의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멀리 이사를 해서 교회 오기가 쉽지 않았지만, 교구 식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구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받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기선교봉사, 만남주일 이외에도 선교대회, 선교바자회, 교구 친교의 날 등 성도님들이 함께 예

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모임을 하나하나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니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친구들과 뛰놀던 기억이 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가 좋았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드리고 친구들과 교제하며 알게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왔고 어느샌가 교회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에게 영락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영락교회 울타리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았기에 그 받은 사랑으로 영락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안의 예배와 모임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커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주십시오. 성도님들의 교제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주십시오. 예배와 교제를 기뻐 받으시고 이를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교회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남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노년

– 시부모 & 장인장모학교 참가 소감

얼마 전 사랑하는 딸이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가까이서 손주를 돌봐주시는 사돈이 안 계셨다면 직장과 가사, 자녀 양육 등 힘겨웠을 딸애가 안타깝던 터에 산후조리 겸 사돈을 도울 양으로 딸네 집에서 주중을 머무르며 과거 육아 경험을 되살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젊었던 시절은 제게 없었던 양, 거울에 비친 모습이 얼마나 측은한지요! 그러나 안 올 것 같던 노년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자녀 세대와 멋지게 살아낼 시간을 기대합니다. 노년 공부를 하면서 결코 아이들에게 몸도 마음도 아파서 힘없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애증의 관계를 위해 내 역할을 찾아보겠다는 각오로 상담부 교육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다뤘던 지난번에 이어 '노화와 영성'이란 주제로 네 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짧은 듯하여 아쉽긴 했지만, 다른 주제로 노년에 필요한 교육을 계속한다고 하니 꾸준히 교육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이광실 권사
인천교구

1, 2회차는 '나이 듦의 심리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강승훈 목사님이 신체적, 심리적 노화를 이해하여 긍정적인 사고로 따뜻한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으면 무력감을 일으키는 여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인생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자기 존중을 확인해 볼 필요를 느꼈으며,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칭찬하여 애도의 자리에서 후회가 없도록 자신과 남을 사랑만 해야겠습니다.

3회차는『자식 농사 주안에서 내 맘대로 된다』라는 책의 저자 권창규 목사님이 믿음의 상속자가 받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삼대에 걸친 신앙 훈련만이 자손만대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던 과거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신앙도 앞서가던 아들 녀석이 지금은 땅끝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돌려놓을까 생각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 죽음을 알

〈노화와 영성〉을 주제로 4회에 걸쳐 시행된 시부모&장인장모학교

릴 때 집사 직분이 있는 아들의 이름으로 부고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때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 감동을 주신 분은 제주도의 숲해설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2의 인생을 사는 정동락 은퇴 목사님입니다. 목회에 한창이던 47세에 구체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셨다니 참 놀랍습니다.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전문자격증을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 일에 우연은 없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최근 오이코스에서 듣는 말씀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언 22: 29)' 말씀이 마음 판과 머리에 새겨져 행동으로 이어질 듯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용기가 불쑥 생깁니다.

저의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이라면 주님 붙들고 산 세월입니다. 자랑하고픈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최고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음에도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는 져야 하는 십자가,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 것입니다. 결코 기독교가 저들에게 무시당할 이유가 없는데 저지당하는 것은 우리가 힘껏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살아온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을 세상일로 바쁜 자녀들은 더 잘 알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을 잡고 기도했던 엄마의 신앙, 고비 때마다 응답받았던 기도의 힘을 말입니다. 저는 이번 교육을 받으며 역할에 대한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다시 엄마의 간절한 기도 생활을 보여주리라! 그 깨우침을 통해 너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들이리라! 다짐합니다.

우리의 노년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달란트와 데나리온 이야기

로마제국의 정치와 경제 중심지 포로 로마노(Foro Romano)

달란트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장사해서 일백 퍼센트의 수익을 남겼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다가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앞의 두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꾸짖고 달란트를 빼앗는 비유가 나온다(마태복음 25:14~30).

30여 년 넘게 금융 분야에서 근무한 필자는 한 달란트의 가치가 신약시대에 얼마나 되길래 주인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분노했을까 궁금하였다. 달란트(talent)의 어원은 무게(weight)를 뜻하는데, 구약시대에 무게를 측정하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나중에 화폐의 단위가 되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재능'을 뜻하는 용어로 확대되었다. 모세가 유대 백성들과 성소를 짓기 위해 2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반 세겔씩 받을 때 '성소의 세겔'(shekel of the sanctuary)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출애굽기 38:25). 이때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된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603,550)이 성소의 세겔로 반(0.5) 세겔을 들여서 은(silver)으로 백 달란트와 천 칠백칠십오(1,775) 세겔을 모았다고 나온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겔을 달란트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는 삼

예루살렘 남서쪽 라치시에서 발굴된 유물

출처 www.bible.ca/bulla

동전 세겔의 무게를 측정하는 추

출처 www.bible.ca/coins

천 세겔이 된다(출애굽기 38:26).[1]

세겔(shekel)은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로 석회암으로 만든 둥근 저울추 형태의 유물이다. 이스라엘 땅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세겔들은 무게 측정을 위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 한 세겔의 평균적 무게는 11.4g(그램) 이다. 동전(coin)으로 사용된 세겔은 대부분 11.4g의 은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삼천세겔이 한 달란트이므로 은 한 달란트의 무게는 34.2kg이 된다. 따라서 금 한돈(3.75g)의 가격이 29만원이므로 금 한 달란트(34.2kg)의 오늘날 가치는 26.4억원이 된다.[2] 참고로 오늘날은 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해서 금의 가치는 은의 가치의 80배를 넘는다. 하지만 역사적 사료를 보면 당시의 금 육 세겔은 은 오십 세겔의 가치로 추정된다. 따라서 금 34.2kg의 가치에서 오늘날의 은의 가치를 환산하면 은 한 달란트의 가치도 약 3.3억 원이 된다.

출처 www.bible.ca/coins

그리스 라코니아에서 발굴된 화폐 저울(아테네 박물관)

즉, 오늘날 기준으로 보아도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오는 금 한 달란트의 가치는 땅에 묻어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 금액이 아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당시의 이자율이 연간 10~20%라고 하니 오랜 기간의 이자 금액만으로도 원금과 맞먹을 정도이어서 주인이 종을 꾸짖을 만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연간 세금 수입의 규모가 금(gold)으로 육백육십육(666) 달란트라고 하니, 오늘날의 금 시세로 1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임을 알 수 있다(열왕기상 10:14).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 중 달란트를 빌려주

1 1달란트(34.2kg) = 3,000세겔 (603,550명×0.5세겔-1,775세겔) ÷ 100달란트

2 1달란트(34.2kg) = 금 1돈 가격 29만원×9,120돈 = 26.4억원

카프리 섬에 세워진 티베리우스 황제 조각상

었을 때 이자라도 받아야 한다는 자산관리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달란트 비유가 가르쳐 주는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신명기에는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구절도 나온다(신명기 23:20).

데나리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다가와 가이사(Caesar·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에 새겨진 로마 제국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과 글을 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22:19~21). 제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순은'(pure silver) 한 데나리온은 숙련된 노동자의 하루 일당과 맞먹었다고 한다. 구약시대에는 한 달란트의 가치는 3,000 세겔이었는데, 신약시대의 한 달란트의 가치는 2,000 세겔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유대의 세겔은 약 세 데나리온으로 교환 되었는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은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16년 5개월 동안의 노임을 모아야 하는 상당한 금액이었다.

당시 일상생활에서는 로마의 데나리온을 사용했지만, 성소에 드리는 예물은 유대 고유의 세겔을 사용해야 했었다. 제사장이 별도로 만든 성소의 세겔로 예물을 드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세계 각지에서 방문하는 유대인들은 유대 고유의 세겔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마태복음 22:19~21)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교도인 로마 황제의 얼굴 형상이 새겨진 로마 데나리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사정을 악용해서 환전상들과 결탁하고 로마 동전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엄격히 감시하고 금지했다. 성전에서 헌금으로 허용되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을 새겨넣은 로마 동전

화폐가 유대의 세겔과 티로(Tyre)의 세겔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소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불가피하게 로마 데나리온을 유대의 세겔 또는 티로의 세겔로 환전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들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마태복음 21:12~13) 하시는 장면이 쉽게 이해가 된다.

티로의 세겔(주전 125~주후 66)

헤롯대왕 시절에 통용된 티로의 세겔

당시 데나리온 가치의 이해를 돕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날,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 명인데, 제자들이 이들을 먹이려면 200 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다(마가복음 6:37). 이와 비교하여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의 값은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고 한 것을 미루어 보면 마리아가 사용한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요한복음 12:5). 그러나 로마제국의 말기에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100분의 1로 하락하여 화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방대한 영토를 다스리고 세계 인구의 20%를 지배하면서 '팍스 로마나'(Pax Romana·로마의 평화)를 건설했던 로마의 대표적인 화폐 데나리온이 외면받게 되었을까?

로마 제국의 동전들

데나리온(denarius)은 십(ten)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포에니 전쟁(BC 218~201) 시기에 처음으로 4g의 은으로 주조되었다. 고대 시대의 동전은 인류의 과거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최적의 유물이다. 지금은 흔적도 남아 있지 않지만, 2,500년 전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던 아테네 황금 입상은 당시의 은화(silver coin)에서 고증하여 재현할 수 있었다. 이런 연유로 유럽 박물관의 경우 1급 박물관으로 인정받으려면 박물관 내에 동전 전시관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503년간 지속된 로마 제국 70명의 황제 측면 얼굴이 새겨진 로마 동전은 동전 전시관의 핵심 소장품이다. 거래 통화인 데나리온은 로마 경제와 본질상 뗄 수 없

트라야누스 황제가 새겨진 데나리온. 서기 101~102년에 로마에서 주조되었다

는 운명에 놓여 있었다. 로마 제국의 영토 확장 시기에는 세금 수입의 규모가 제국의 재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영토가 최대로 확장된 제13대 트라야누스 황제(AD 117년) 이후, 로마 제국은 방대한 국경을 지키고, 게르만 민족들의 침입과 싸우기 위해 세금 수입을 초과해서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재정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어려움을 맞아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제국 백성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불가피하여, 데나리온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손쉬운 방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즉,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한 데나리온이지만, 동전을 만드는데 기존의 4g의 은을 사용하는 대신 1g 함량의 은을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데나리온을 만들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군인 한 명이 받는 월급은 여전히 30데나리온이지만, 기존에는 120g의 은이 필요했지만, 30g의 은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120g의 은을 가지고 30데나리온이 아니라 120데나리온을 찍어낸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AD 54년 제5대 황제 네로가 파르티아와의 전쟁, 유대 독립전쟁, 로마 대화재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데나리온 주조에 들어가는 은의 함량을 줄였다. 그 이후 로마 황제 자리를 세습제로 만든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가 군인 봉급을 세 배로 인상하기 위해 다시 은의 함량을 낮추면서 결국 물가상승의 거센 후유증을 겪던 중에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로마 제국은 붕괴하게 되었다.

현대에도 각국 정부들이 재정 지출을 늘리다 보니, 필연적으로 화폐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해서, 다시 재정 지출을 늘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더라도 금방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 일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빚을 주인이 탕감해주었는데, 그 종은 나가서 백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비유가 나온다. 만 달란트는 6,000만 데나리온으로서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할 수 있다. 구원의 은혜도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 종은 백 데나리온의 빚 때문에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가차 없는 행동을 하고 오히려 그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우리도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만남

차영수 집사
서초교구
홍보출판부 만남편집위원장

소아 당뇨에 대해 알아봅시다

당뇨병이란 무엇일까요?

당뇨병은 언뜻 글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소변에서 포도당이 검출되는 병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혈액에 포도당이 넘치기 때문에 발생한다.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은 이유는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여 이용할 때 필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세포가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액은 고혈당을 보이지만 세포는 포도당의 기근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들은 전신 피로를 느끼게 되고, 다음, 다뇨, 다식 및 체중 감소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당뇨병은 성인에게 흔한 질환이어서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10% 이상이 당뇨병 환자라고 보고되는 반면, 소아에서 당뇨병이 발병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형 및 2형 당뇨병의 발병이 소아에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2형 당뇨병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번 『만남』에서는 소아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당뇨병의 종류 및 진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당뇨병의 종류

당뇨병은 고혈당이 가장 중요한 임상적 특징인 만성적, 대사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종류는 크게 인슐린의 절대적 결핍으로 인해 인슐린 치료를 생존에 반드시 해야 하는 1형 당뇨병과 인슐린의 상대적 결핍 또는 저항성을 특징으로 하는 2형 당뇨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단일 유전자 질환 또는 증후군에 해당하는 특수 형태의 당뇨병과 임신성 당뇨병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소아에게 발병하는 1형 및 2형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

크게 다음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애매모호한 경우는 두 번 이상 같은 결과가 나오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1) 적어도 8시간 이상 공복 후에 채혈한 혈당이 126 mg/dL 이상
2)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mg/dL 이상
3) 식사 시간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검사한 혈당이 200 mg/dL 이상이면서 다음, 다뇨, 다식, 체중 감소 또는 전신 피로감 같은 임상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4) 최근 3~4개월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

소아 및 청소년의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1형 당뇨병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

유지숙 집사
서초교구, 의료선교부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니다. 과거에는 소아에서 발병하는 당뇨병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여 '소아형 당뇨병'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당뇨병 치료에 인슐린이 꼭 필요하다고 하여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불렸던 질환입니다. 1형 당뇨병의 90% 이상은 자가면역 기전에 의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 췌장 베타세포에 대한 자가면역기전의 발생 및 인슐린 분비의 점차적인 감소 시기
2) 임상적으로 고혈당을 보이는 당뇨병의 발생 시기
3) 일시적인 허니문기
4) 당뇨병의 확립 및 급·만성 합병증 출현 가능성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은 '성인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 또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 불렸던 당뇨병입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1형 당뇨병과는 달리, 인슐린 분비의 상대적인 결핍 또는 인슐린을 이용하는 근육이나 지방 세포 등 각 기관의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즉석 음식, 고열량 식사, 좌식 생활에 따른 운동량 부족, 이에 따른 소아 비만 인구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아의 2형 당뇨병의 발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소아 비만 관리 및 당뇨병 선별 검사를 통한 당뇨병의 조기 진단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형 당뇨병처럼 2형 당뇨병 소아들에게서도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다음, 다뇨, 다식, 체중 감소, 전신 피로감 등이 보일 수 있는데, 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해야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소아 비만 환자에게서는 목둘레, 겨드랑

이, 사타구니 등 몸의 접히는 부위가 검게 착색되는 흑색극세포증 (acanthosis nigricans)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당뇨병 증상 및 임상 소견을 잘 인지하고 있으면 2형 당뇨병의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병 시 전형적인 당뇨병의 임상 증상을 급격히 보이는 경우가 많은 1형 당뇨병과는 달리 2형 당뇨병은 임상적으로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 고혈당 시기에 도달했어도 초기에는 임상 증상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과체중 소아의 경우 2형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으면서 흑색극세포증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 있는 증상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10세부터 또는 그 이전에 사춘기가 시작되었다면 사춘기 시작 시기부터 2형 당뇨병에 대한 선별 검사를 통해 혈당 검사를 시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2형 당뇨병의 치료로는 진단 시부터 인슐린 주사를 고려할 수 있지만, 심한 고혈당의 상태 또는 현재 케톤증(?)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우선하여 생활 습관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치료제로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먼저 고려할 수 있으며, 인슐린 치료와 경구용 혈당강하제의 복합적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관리 및 합병증의 예방

당뇨병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급성 합병증에는 저혈당, 당뇨병성 케톤산증 및 비케톤성 고삼투압성 혼수 상태 등이 있으며, 만성 합병증에는 신장(콩팥) 합병증, 안과적 합병증 및 심·뇌혈관계 합병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당뇨병을 잘 관리하여 당화혈색소를 가능한 정상 범위에 근접하도록 유지하면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자가혈당 검사기를 통해 스스로 또는 보호자의 도움과 함께 혈당을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당화혈색소 검사 및 필요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숙지하고 생활화하며, 식단 관리 및 적절한 운동을 통해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식사량을 제한한다면 한창 커야 할 시기에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영양 공급 또한 중요하며, 지나치게 엄격한 혈당 관리를 하면 저혈당 발생에 따른 뇌기능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연속 당 측정기'를 통해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저혈당의 빈도를 줄이고 당화혈색소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담당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근의 당뇨병 관리는 새로운 임상적 근거들을 반영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뇨병의 치료 성적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아 당뇨병의 치료에 있어서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과 학교 교사의 역할 역시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만성 대사 질환이고 아직은 일회성 치료가 아닌 꾸준히 치료하며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어서 주변 분들의 관심과 이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아 당뇨가 있는 소아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당뇨병에 대해 이해하고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글을 맺고자 합니다. 만남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 주제로

- 본교회와 교회 산하 7개 학교 344명 응모

올해로 6회를 맞는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북적북적 독서 행사〉 공모전이 344편 응모작 중 67편의 수상작을 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대주제 아래, ① 위기의 시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② 팬데믹과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역할 ③ 빚진 자의 마음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 실천 등 3가지 세부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응모 기간에 본 교회의 청·장년부, 중·고등부와 대학부 성도들 그리고 교회 산하 7개 기독교 학교 재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가했습니다.

심사는 홍보출판부, IT미디어부, 영락미술가협회 등 우리 교회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8인의 심사위원이 담당했으며, 부문별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 2편, 최우수상 13편, 우수상 25편, 장려상 27편으로 총 6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11월 13일 찬양 예배 시간에 열렸으며, 교회 산하 7개 기독교 학교는 학교별로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수상작은 11월 13일(주일)부터 26일(토요일)까지 베다니광장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며 각자 맡은 역할을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만남

□ 본 교회 수상자 명단 - 아티클(소논문) 부문

■ 대학·청년·장년부 [5명]

	이 름	제 목	소 속
대상	허준영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대학부
최우수상	임유진	탄식을 넘어 대망으로	대학부
	신해영	찾아오고 싶은 공간	장년부
우수상	이영인	무엇을 위한 지속가능성인가?	대학부
장려상	김윤아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먹고 걷기	청년부

□ 일반 부문

■ **장년부** [7명]

	성 명	제 목	응모 부문
최우수상	최은만	예수님께 뿌리내린 삶을 읽고	독서감상문
우수상	우정미	나의 감사	포스터
	이휘윤	예수님께 뿌린 내린 삶-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은 누구입니까?	독서감상문
	윤종진	모호한 삶 앞에서	포스터
장려상	이영옥	위기의 시대 한경직 목사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회화
	박찬규	나의 신앙은 찬양으로 회복하였다	독서감상문
	송길례	모호한 삶 앞에서	독서감상문

■ **대학·청년부** [3명]

	성 명	제 목	응모 부문(소속)
최우수상	박창조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독서감상문(대학부)
	김에스더	최후 만찬의 의미	UCC(대학부)
장려상	윤성훈	위기(位記) - 위로하고, - 기도하고, 사랑하자. - 위기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	독서감상문(청년부)

■ **고등부** [3명]

	성 명	제 목	응모 부문(학년)
우수상	장강	먹다, 듣다, 걷다 - 다시 시작하기	독서감상문(2)
장려상	김주은	기후 위기를 맞닥뜨린 그리스도인의 실천	독서감상문(2)
	최유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수기(2)

■ **중등부** [4명]

	성 명	제 목	응모 부문(학년)
최우수상	김경민	기후 위기 속 그리스도인의 역할	UCC(3)
우수상	민주은	시간을 잇는 아이 - 따뜻함을 전한다는 것	독서감상문(2)
	김현민	시간을 잇는 아이	회화(1)
장려상	이서은	시간을 잇는 아이	독서감상문(3)

2022
북적북적
장년부
최우수상
독서감상문

『예수님께 뿌리내린 삶』을 읽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전자제품이 있고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콘텐츠가 넘쳐나는 현대인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 보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점점 빠르고 바쁘며 더 많은 뉴스와 복잡한 일상으로 인해 우리를 더욱 불안하고 공허하게 합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점령되어 가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을 잘 찾지 않으려 합니다.

밤새 얕은 곳에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더 깊고 안 보이는 내면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더 깊고 의미 있는 믿음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이 책은 다섯 가지 측면의 가치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깊이 생각하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저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관조적 리듬을 찾을 것을 권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심을 아는 시간 즉 안식의 시간, 침묵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삶에 우리의 목적을 찾기 위해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꿰뚫을 때까지 성경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두 번째로 들고 있는 이슈는 인종 문제입니다. 저자가 사는 미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대표적인 원인은 인종이지만 우리 사회도 정치적 이념과 출신 지역, 빈부 차이 등으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에서 화해하기 위해 기억하고 경청하며 탄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종과 이념, 출신, 빈부 등의 장벽을 뛰어넘어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한 세리 마태와 정부를 반대하는 열심 당원이었던 시몬은 아주 큰 차이를 보였지만 함께 생활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는 영성을 형성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내면 점검입니다.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내면과 관련이 있고 눈에 보이는 정도보다 숨겨진 자아가 더 많이 있어서 자신에게 깊이 귀 기울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자는 우리 안을 깊이 파고드는 데 도움이 되는 찬양과 애도, 감사의 기도를 실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건강을 위해 감정과 반응에 관해 자세히 점검하고 무엇보다 깊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삶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성 윤리도 정립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과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임재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가치가 통합되는, 영성이 뿌리 깊게 형성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교는 무엇을 하는 가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행함(눈에 보이는 것)과 존재(보이지 않는 것)는 구별되어야 하며 존재 없는 행함보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존재가 중요합니다.

책을 읽은 후 4주 동안 저자가 권하는 영성 훈련의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해보니 괜찮았던 훈련도 있었고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따라 하기 힘든 실천 방안도 있었습니다. 관상적 리듬을 찾기 위해 안식일 준수를 실천해 보니 주일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리고 노동보다는 한계를 누리는 날로 정하고 일과 TV, IT 기기를 멀리했습니다. 좋아하는 주말 독서도 영적 독서와 성경 읽기를 실천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침묵 속에 주일을 보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에 소개된 내면의 감정과 반응 점검을 위한 네 가지 질문은 일이 원하는 대로 잘되지 않을 때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었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나를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자신에게 물어 감정을 정리해 봅니다. 이번 학기부터 대면 강의를 시작했는데 강의실의 전자교탁은 물론이고 마이크도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이라면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 화도 나고 어떻게 책망할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잠시 내면을 정리하는 동안 주님은 무어라 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시청각 교구 관리자는 수리를 시도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하는 담당자에게 천천히 기사를 불러 수리해도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빙산 탐험'이라는 이 질문은 내면의 감정을 밝히고 분별하여 치유해야 할 부분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선교적 임재의 실천 방안인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인식하는 것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학생들을 모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에 모여 기도회를 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기도 모임을 이끄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린 나의 존재가 그들을 하나님에게 이끄는 선교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린 삶은 영적 성장에 대해 새롭고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효과가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개인적으로 내면의 깊은 믿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회 공동체와 가족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형성은 우리 DNA가 아니라 마음에 다양한 측면의 여러 갈래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고 쉽게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 맺으며 잎이 시들지 않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형성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최은만 성도

2022
북적북적
대학·청년부
최우수상
독서감상문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예수님께 뿌리내린 삶』

'내 삶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 책은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는 모두를 위한 책이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가 사그라드는 와중에 과연 우리의 신앙은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는지 점검해 보았다. 신앙은 마치 위에서 떨어트린 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땅에 한 번 튕긴 뒤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 말이다.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의식도 못 한 사이에 어느새 이리저리 튀어 예상치 못한 곳으로 멀리 가버린 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 말씀은 명확하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그렇지만 우리는 간단하고도 명료한 이 문장을 지키지 못하며 산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 이유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저자는 첫머리에서 고갈된 삶에 대해 말한다. 속도를 추구하는 삶. 무엇에 쫓기는지도 모르는 분주한 삶. 그것이 피상적인 지금의 세대이다. 정신없이 바쁜 속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사라져 간다. 하나님 안에서 침묵 속에 거하는 시간이 점차 없어지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일상 중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게 된다.

최근의 내 삶이 그랬다. 피상적인 삶에 물들어 있었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식사기도 때나 주일이 되어서야 의례적으로 찾곤 했다. 눈에 띄게 바쁘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여유는 없었다. 가만히 침묵에 잠기는 시간을 따로 갖지 않았고, 말씀이 결여된 삶을 살면서 점차 세상의 논리에 물들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를 염려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삶을 더 낫게 할 수 있을지 골몰했다. 성경보다는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읽었으며, 주님께 내 고민을 내려놓기보다는 친구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았다. 설교보다는 세상의 위로를 찾아 헤매었다. 내 신앙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끼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의 설교가 와닿지 않았고 찬양은 의

미 없는 읊조림이 되었을뿐더러, 마음은 늘 어딘가가 공허했으며 그렇지 않을 때면 불안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져 한 친구에게 고민을 얘기하니, 그 친구는 스스로 방황하는 자신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본인이 방황할 때는 자신이 엇나가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는 말도 덧붙였다. 위로 아닌 위로를 들었지만,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고 싶었던 것 같다. 하나님 한 분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외쳤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다. 미세하게 세상에 휩쓸리다 보니 다른 것에 중독되기도 했다. 아마 다른 신앙인도 그러지 않을까 싶다. 돈, 명예, 일, 그리고 술 등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로잡을 만한 것들이 세상에 만연하다. 그러다 보니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다. 세상 것으로 자신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머릿속으론 알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기에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열정이었다. 책에서 말하듯,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단편적인 위로의 조각들만 찾아 살다가 나에게도 내면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내 삶에서의 예수님은 구획화된 일부에만 계셨고, 분주함 가운데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폭풍 한가운데에도 계시는 예수님이지만 넘쳐나는 다른 생각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시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저자의 말대로 내면의 불안, 감정, 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의식적으로 이런 시간을 따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무척 어려웠다. 이미 익숙해진 삶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도움을 빌려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노력했다. 성경 읽기조차 부담이었던 내게 책의 말들은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하나님의 뜻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잠깐이나마 기도했다. 그리고 가만히 머무르고자 했다. 저자는 성경에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예를 든다. 모세, 다윗, 마리아, 세례 요한, 예수님이 그 증인들이다. 이러한 실천이 쉽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위안이 되었던 사실은 저자가 침묵 기도의 지루함을 정상적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이 지루함은 필요한 과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다. 놀랍게도 이 작은 여정은 마음의 분주함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행위가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오히려 높은 도덕률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부끄러워할 점이 더 많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했다. 일전에 아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기독교와 타 종교들의 차이는 변화의 대상이라는 말씀이었다. 다른 종교는 신

을 변화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지만, 기독교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나의 변화의 출발은 침묵 기도의 시작인 것 같다.

선교에 관한 책 내용도 와닿았다.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창한 생각을 지울 수 없어 선교를 어렵게 여겼다. 때때로 노방 전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먼저 떠올라 마음의 부담이 크기도 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선교는 우리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선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거리에 나가 메가폰을 들고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배타적인 것이 선교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선교라는 말 때문이었다. "그분의 현존은 주로 우리가 잘 해낸 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처럼 일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중 일부인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것 하나 소홀해도 되는 것이 없다. 말 그대로 "주께 하듯" 일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일은 청지기의 자세로 선교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선교적 실천 방안 중에 하나로 저자는 '정의'를 꼽았다. 정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게 하는 것이다. 정의는 복음과도 연결 지어져 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만이 아니다. 이는 물리적인 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난함을 가진 사람을 실천적으로 도와야 한다. 옳지 않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이들을 도와야 하고, 개인을 치유해야 하며 악한 권력에 눌린 자들을 도와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또한 그러한 길을 마땅히 걸어야 할 것이다. 삶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예수님이 바라시는 정의를 이루어 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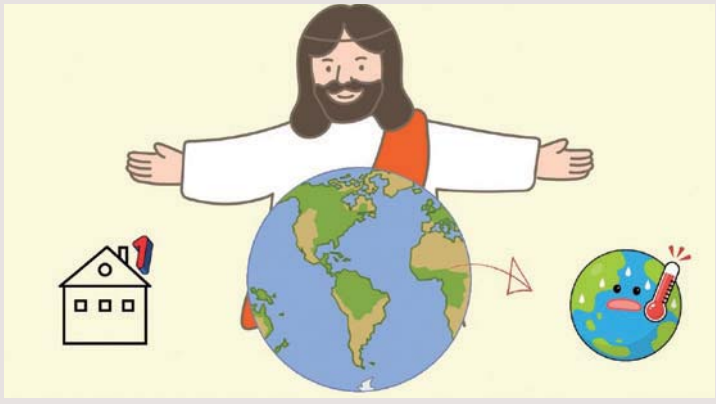
책에서 가장 와 닿은 말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은 변화시키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고 남겨 두기를 원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저자의 말이다. 하나님은 전인적 존재로서의 우리를 받기 원하신다. 파편화된 일부만 변화된 삶이 아니라 책에서 언급된 삶의 리듬, 인종적 화해, 내면 점검, 성적 온전함, 선교적 현존이 골고루 고려된 삶이 우리에게 요청된다. 개인에게 맞는 부분만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숙고하여 깊이 있게 형성된 삶을 살 때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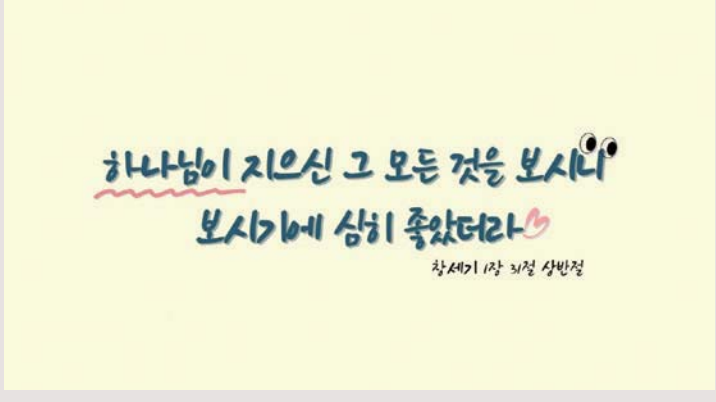
박창조
대학부

2022
북적북적
중등부
최우수상
UCC

기후 위기 속 그리스도인의 역할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





김경민
중등부

2022
북적북적
대학부
최우수상
UCC

최후 만찬의 의미

『먹다 듣다 걷다』

김에스더
대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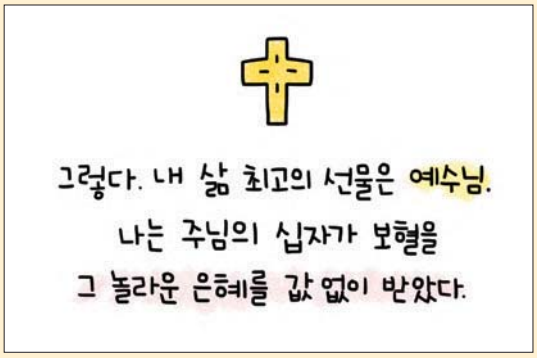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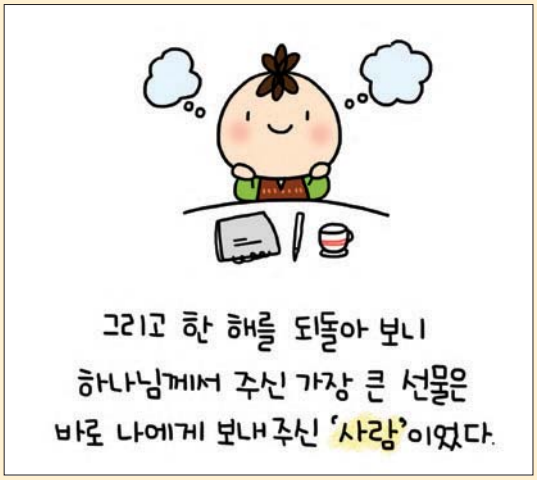
김초롱_ 기독교 웹툰작가
『초롱이는 하나님 바라기』,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도 돼』
한동대 산업정보 디자인학부 졸업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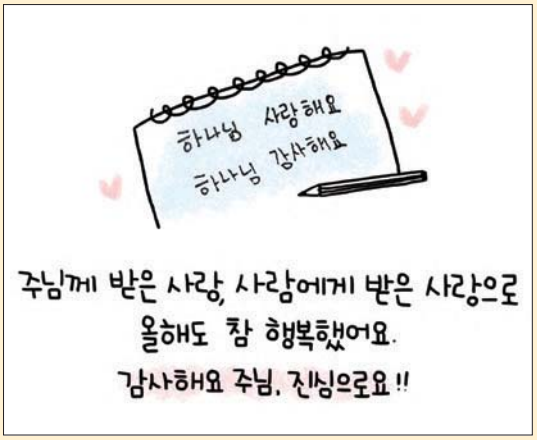


3



4

5



예수님이 주인공

1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어요.

2

전 세계 사람들이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날...

하지만 그 축제 분위기 가운데
주인공은 찾아볼 수 없어요...

3

예수님을 아는 친구들도

4

크리스마스에 사람들과
추억을 어떻게 쌓을지만 기대하고

5

같이 보낼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며 신세한탄을...

6

또는, 무슨 의미인지
서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요.

7

예수님이 이 날의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없는 전 세계 축제의 날

8

12월 25일...

예수님...

9

세상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해도

10

저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고백할게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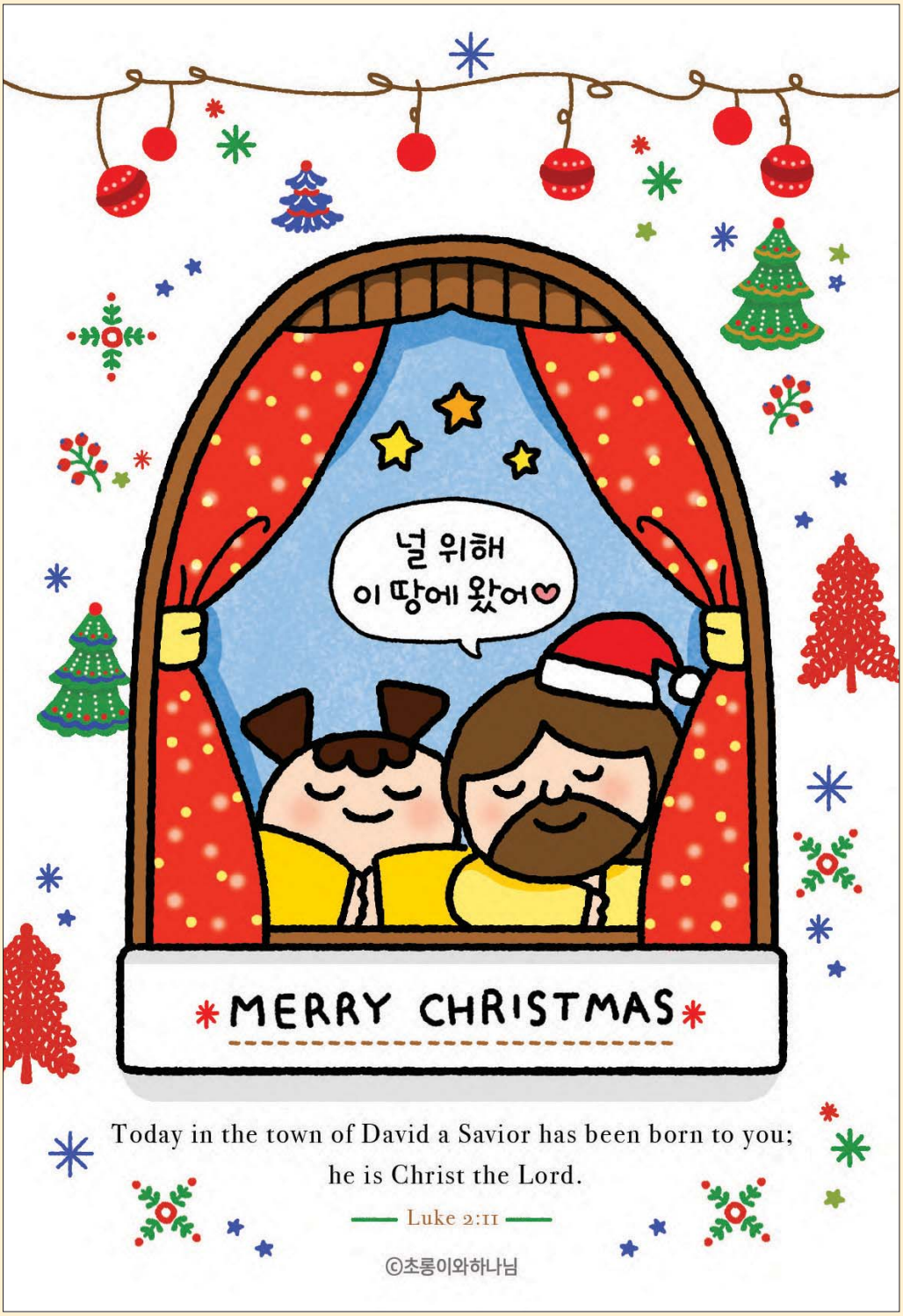
이 땅에 우릴 위해 오신 주님,
사랑해요!

12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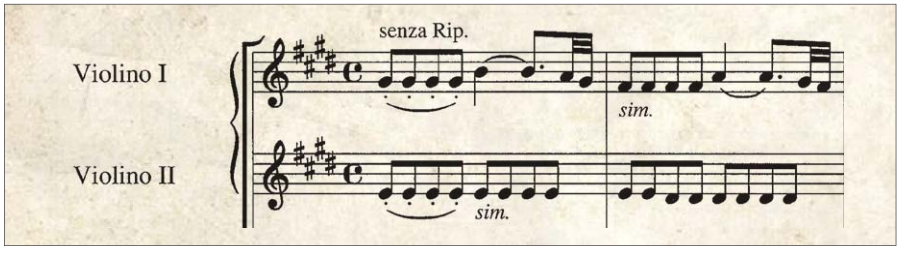
주님을 기억하는 성탄절


널 위해
이 땅에 왔어♡
MERRY CHRISTMAS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Luke 2:11
©초롱이와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해마다 대림과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면 곳곳에서 열리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연주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교회음악을 넘어 클래식 음악 역사 전체에서도 손꼽는 이 역작에는 '할렐루야(Hallelujah)'와 '우리를 위해 나셨다(For Unto Us a Child is Born)' 등의 유명한 합창곡들도 있으나, 오늘은 이러한 단편적인 하나의 악장이 아니라 작품 전반에 흐르는 정서와 메시지를 조명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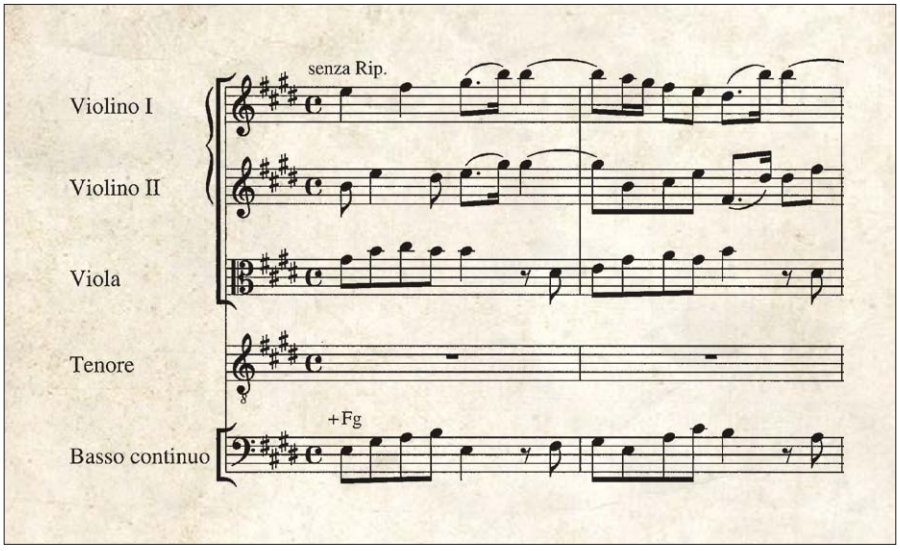
오라토리오의 특성상 첫 악장은 서곡(No. 1 Overture)이다. 그렇다면 가사(text)가 있는 다음 악장(No. 2 테너 레치타티브)의 첫 단어는 무엇일까?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이사야 40:1)"이다. 이 '위로'라는 단어를 소개하기 위한 장치로 헨델이 사용한 음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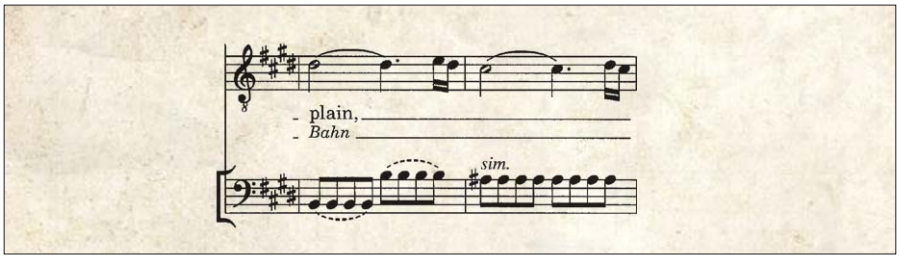
이음줄로 연결된 같은 음의 연속을 현악기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활(bow)을 현(string) 위에 올려놓고 어루만지듯이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첫 단어가 나오기 전에 이미 현악주자의 손길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이어지는 악장(No.3 테너 아리아)에서는 무엇이 보이는가?

백정진 집사
마포·영등포교구
베들레헴찬양대 지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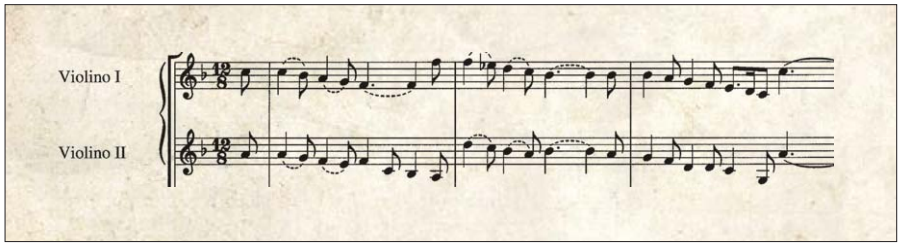
위로의 손길과 대비되는 위아래로 요동치는 음표들이 등장한다. 바로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이사야 40:4)” 변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지각변동을 통해 약속된 것은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사야 40:4)”이라는 소망이다. 헨델은 다시 한 번 이 ‘평탄함(plain)’에 악기의 음형을 통해 ‘위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기 백성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고된 일상을 살며 공정한 사회를 고대하던 당시의 청중뿐 아니라, 작곡가 자신에게도 필요한 ‘위로’였다. 이태리에서 최신 오페라 양식을 습득한 헨델은 당당하게 영국에 입성하여 전성기를 구가했으나 청중의 취향은 곧 변했고, 그의 오페라는 외면받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를 작곡하기 직전에 썼던 오페라(Deidamia, 1741)가 그의 마지막 오페라로 기록되어있다. 그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었던 도구를 통해 또 얼마나 철저하게 버림받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악장(No. 19 알토 레치타티브)에서는 다음의 성경 구절을 선택했다.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 35:5~6)" 이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라고 물었던 감옥 속의 세례 요한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마태복음 11:3~5)과 흡사하며, 마치 '네가 선포했던 그가 메시아가 맞으니,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의 메시지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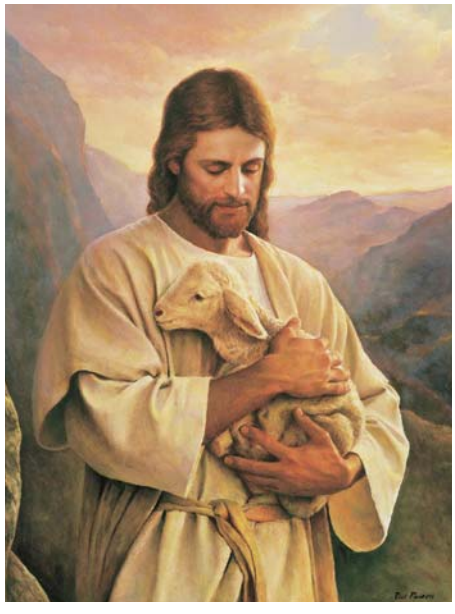
이어지는 악장(No. 20 알토 & 소프라노 아리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음악이 흐른다:



이와 같은 12/8박자의 음악은 당시 목가풍(Pastoral) 양식으로서 양 떼와 목자가 있는 정경을 상징한다. 이 음악에 사용된 가사는 다음과 같다.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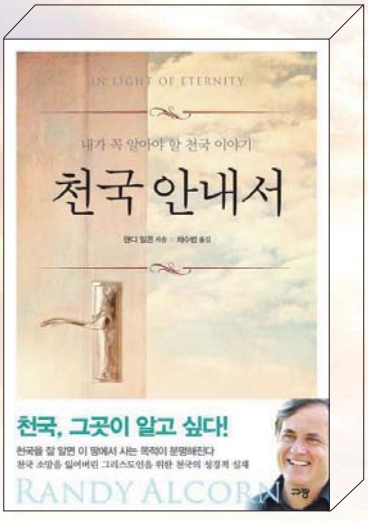
어린 양은 팔로 안아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시고, 어미 양은 거친 막대기가 아닌 부드러운(원문: gently) 손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

양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이 이보다 더 사랑스럽게 표현될 수 있을까? 헨델 생전에 〈메시아〉 연주는 대부분 자선 음악회로 연주의 수익을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사용했다. 당시에 소외되던 어린이들과 여성들에게도 이 음악은 실존하는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해마다 만나는 〈메시아〉이지만, 올해는 작품 속을 관통하고 있는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참 목자이신 주님의 어루만지시는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는 감격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만남

천국 안내서



랜디 알콘 지음 / 채수범 옮김 / 규장 / 2015년

랜디 알콘의『천국 안내서』는 이 세상 유일한 '천국 안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귀한 책입니다. 좋은 책이라고 한다면 나를 잘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나보다는 천국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천국을 갈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책이기에 그 어떤 책보다 더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천국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많은 성도에게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했고,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가로막았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자는 [우리는 천국을 꿈꾸는가?], [우리가 몰랐던 천국],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책일 뿐만 아니라 천국을 바로 보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 참 무지했고, 무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올바르지 않은 비성경적 관점으로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천국과 관련된 책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관점으로 서술한 책이 정말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읽으려 해도 선별하여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랜디 알콘의『천국 안내서』는 성경적 근거를 탄탄하게 대면서 천국을 설명하여 독자들이 가졌던 천국에 대한 희미한 관점을 더 선명하게 바꿔주기에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제가 사역해오던 영적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주일마다 전하는 설교 대부분이 천국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믿음, 신앙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교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천국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

어 이 책을 읽으신다면 저처럼 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면서 인생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천국을 가장 생생하고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책은 우리에게 주신 천국 안내서인 성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천국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과 함께 참고서로서 적격인 이 책을 함께 읽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관해 더 깊이 알고 사모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천국 안내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각 교구에서는 교구 식구들에게,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천국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멋진 천국 안내자 되시길 바랍니다. 만남

박상엽 목사
설악산수양관

문화광장 _ 작가노트

참 빛(Origin-Harmony)

우주 속의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주신 빛을 통해 생명을 얻고, 성령의 빛을 발하여 다른 이웃의 생명들과 서로 사랑하며 조화를 이룬다. 그 생명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생명으로 자연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 빛은 생명의 근원을 시각화하여 생명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명의 원리를 추구한다. 만남

박은숙 권사 _ 용인·화성교구

교 회 소 식 news letter

2022 추수감사주일예배 및 연합 찬양예배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예배가 1부~5부까지 예배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은혜롭게 드려졌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님은 '복음, 하나님의 능력(로마서 1:8~17)'이라는 제하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다면 모든 삶은 복음으로, 전도로 통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이날 저녁 찬양예배는 추수감사 음악예배 및 새가족 환영회로 드려졌다. 추수감사 음악예배에서는 영락교회 8개 찬양대 시온, 베다니, 호산나, 임마누엘, 갈보리, 갈릴리, 베들레헴, 할렐루야가 찬양대석과 2층을 가득 메운 가운데 임마누엘 주관(지휘 최상규, 오르간 박소현)으로 〈감사드리세〉(Stanley Dickson곡) 등 총 3곡이 연주되었다.

이날 함께 열린 새가족환영회는 새신자 간증과 함께 새가족 수료식도 가졌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14일(월)부터 19일(토)까지 "틈새에서 솟는 샘물"을 주제로 특별새벽기도회가 드려졌다. 김운성 위임목사의 말씀과 더불어 중·고등부, 청년부 집사, 권사가 기도와 간증으로 은혜를 더했다.

취재 인미 편집위원 **사진** 원종석 기자

중·고등부 추수감사절 연합예배

2022 중·고등부 추수감사절예배가 11월 20일 드림홀을 가득 메운 가운데 중·고등부 연합으로 은혜롭게 드려졌다.

예배는 특별히 이영선 원로장로(전 교육부장)의 기도와 중등부 최세아 학생(중등부 학생회장)의 성경 봉독, 노대웅 목사의 말씀과 중·고등부 연합찬양대의 추수감사주일 칸타타로 이어졌다.

올해는 특별히 과일 대신 생필품을 모아 "사랑 나눔의 박스" 111박스를 만들어 영락모자원과 근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취재 인미 편집위원 **사진** 원종석 기자

스무 살이 된 CebC 화이팅! 20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려

2002년에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 육성을 목표로 시작된 CebC(Children's English Bible Class·어린이영어성경반)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였다.

CebC에서는 2022년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교육관 4층에서 오후 2시부터 추수감사예배와 더불어 CebC 20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진행되었다. 이날 CebC 20주년 기념 Thanksgiving Service행사는 학생 100여 명과 교사 스텝 30여 명, 학부모 30여 명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CebC를 섬기셨던 지도위원님과 교사 4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하여 풍성한 시간이 되었다. 이날 초대 부장을 역임하신 강신만 장로께서 영어로 인사말을 하여 아동부 아이들이 알아듣는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다. 수많은 지도위원과 선생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CebC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모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예배 찬양과 말씀 공부 그리고 특별 순서에 발표하는 학생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참석자들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제공 CebC

'주 우리와 함께(God with Us)'
- 중등부 여호수아찬양대 정기연주회 개최

중등부(부장 김지언 장로)는 지난 11월 6일(주일) 베다니홀에서 〈여호수아찬양대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연주회에서 '주 우리와 함께(God with Us)'라는 제목으로 중등부에 소속된 50여 명의 찬양대원과 앙상블대원, 교사들이 약 4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다양한 레퍼토리들을 무대에 올렸다.

'Kyrie', 'Gloria'등 고전음악을 시작으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등 현대의 합창곡들을 차례로 연주했다. 이어진 앙상블팀의 연주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또 '주 우리와 함께(God with Us)'곡은 합창과 앙상블, 율동과 드럼연주 등을 칸타타 형식으로 색다르게 연출해 다양한 찬양곡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베다니홀을 가득 메운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선물했다.

특별히 연주회 마지막 순서에는 '오 신실하신 주'를 객석의 회중과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합창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전도행진 365〉를 마무리하며

2022년 가을 전도캠페인 〈전도행진 365〉가 10월 16일 주일부터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까지 진행되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라는 표어로 시작된 캠페인 기간 동안 117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299명의 전도대상자를 작정하였고, 전도부(부장 조용철 장로) 중보기도팀과 영락기도대가 함께 이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캠페인 마지막 날인 11월 20일에는 〈전교인 예배로의 초대〉를 진행하였는데, 그동안 기도해온 전도대상자들을 예배에 초대하였고,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랫동안 현장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추수감사주일 현장예배에 참여하도록 재초청하였다.

그 결과 캠페인 기간 동안 총 114명의 전도대상자가 주일 현장예배에 참여하여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재초청된 성도들도 함께 예배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도사역에 순종하여 동참할 때 귀한 열매와 기쁨을 누리게 됨을 확인하였다.

제공 전도부

입시와 취업을 위한 비전기도회

교육부(부장 정천우 장로)는 교회학교 학생들의 입시와 취업을 위한 비전기도회를 11월 5일(토) 벧엘기도실에서, 12일(토) 드림홀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진행했다.

고등부 노대웅 목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창세기 1:1~5)'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내 믿음의 확신을 선포하자'고 전하였다. 2차 비전기도회에서 대학부·베드로부 탁현수 목사는 '여호와 이레(창세기22:13~14)'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고 권면하며 찬송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1월 17일,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당일

에는 오전 8시 40분부터 수능시험을 마치는 시간까지 고등부, 대학부·베드로부의 수능을 치르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교사들이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월드비전, 제1회 한경직상 시상식 아프리카 가나에서 열어

아프리카 가나에서 열린 월드비전 국제이사회 총회는 제1회 '한경직상' 수상자를 에티오피아의 요하네스 구스타보 발지드(Yohannes Gustavo Balged)목사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발지드 목사는 에티오피아 월드비전의 파트너십 사역과 공산주의 치하의 기독교 박해를 견뎌내 복음 사역과 인도주의적 봉사의 공적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11월 아프리카 가나 현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한경직기념사업회 최승도 목사가 참석하여 시상했다.

한국월드비전 이사회는 지난 2021년 3월, 초대 한국월드비전 이사장을 역임하신 한경직 목사님의 섬김과 봉사정신을 기리고자 '한경직상'을 제정하여, 월드비전 협력 16개 국가에서 총 24명의 목사, 선교사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월드비전 국제본부 3년차 총회에서 3년 주기로 열리는 시상식에서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의 후원으로 상금 미화 25,000달러를 포상한다.

취재 인미 편집위원 **사진제공**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2022년 2차 영락포럼 개최

북한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의 2022년 하반기 영락포럼이 '접경지역에서 본 북녘과 제3국에서 만난 북한 사람들'이란 주제로 10월 30일(주일) 오후3시~오후5시까지 50주년기념관 4층에서 진행되었다. 청년부, 대학부, 성도 등 98명이 참석하여 강사이신 강동완 교수(정치외교학 박사, 동아대 교수, 부산하나센터장)의 강연을 들었다.

이날 강사는 북한의 접경지역에서 농촌 생활 등 실상을 근접 촬영한 사진과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팔려간 부녀자에 대한 통계와 생활상을 소개했다. 그리고 한국으로 이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와 대응 방법에 대한 사항을 직접 인터뷰한 사례,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파견 경위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는 어려움 등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였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제3국을 떠도는 분 그리고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한국 이주에 대한 방법과 그분들에 대한 현지에서의 선교 협력 방안과 자유대한민국에 정착한 자유인에 대한 선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공 북한선교부

의료선교부, 제6차 교회연합의료선교세미나 개최

- 코로나 시대, NGO와 연합하여 의료선교 회복 모색

의료선교부(부장 김경오 장로)는 '코로나시대의 의료선교'라는 주제로 제6차 교회연합 의료선교 세미나를 드림홀(50주년기념관 지하2층)에서 11월 5일(토) 오후 3시 30분~6시에 개최했다. 세미나는 각 교회의 의료선교 관계자 및 NGO 단체 사역자, 성도 등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지난해 5월 코로나가 창궐할 때 줌(Zoom)으로 열린 5차 세미나를 떠올리며 이제 대면으로 열리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1부 경건회는 홍석훈 안수집사(의료선교부 차장)의 사회로 박홍준 장로(증경회장)의 기도로 시작 하였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수고가 더욱 절실할 때이다"고 말씀을 전했다.

2부 세미나는 정광윤 안수집사(의료선교부 팀장)의 사회로 김명진 (사)한국기독교 의료선교협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안규리 교수는 라파엘크리닉의 '비전과 미션', 국제의료협력단의 김병선 교수는 'NGO역할 2', 아프리카미래재단의 김억 목사는 '교회와 NGO의 협력', 의료선교부 차장 박도준 안수집사는 '교회의 역할'의 주제로 발표하였다. 코로나 시대 의료선교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의 소외계층 및 국내외 이주 노동자 의료선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김경오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의료선교는 어려운 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다. 코로나19로 단기의료선교가 막히고 선교 상황이 쉽지 않지만 이 자리가 교회와 NGO단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목표를 갖고 비전을 공유하며 사회적 약자, 이주민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의료선교 사역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회 내의 의료선교부는 1966년부터 교인의 의료진 봉사로 시작하여 1980년에 의료봉사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91년부터는 국내의료봉사와 더불어 해외의료선교 시작, 2012년 제직부서로 출발하여 성장해왔다. 코로나 기간에도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에게 의료키트를 제작하여 보내고 있다. 국내 농어촌 및 미자립 교회와 이주민에게도 의료선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매주일 성도들에게 의료봉사로 의료상담 및 응급처치, 가정상비약을 제공하고 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제2회 구역활성화를 위한 구역장 심포지엄

목양부(부장 지동춘 장로)는 2021년 제1회에 이어 미래지향적인 구역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4일(금) 10시 30분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제2회 구역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구역장 총 503명(대면 453명과 온라인 50명)의 참여로 김운성 위임목사의 말씀을 전한 뒤 패널들의 발제와 참여자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목양부에서는 심포지엄에서 도출된 구역사역 현안에 따른 사안과 방안을 구역사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목양부 자체 평가와 필요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정책입안 및 실행의 토대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는 구역 사역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힘써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제공 목양부

손양원 목사 순교73주년 기념 〈용서를 넘어선 사랑〉 우리 교회에서 공연

손양원 목사(1902~1950) 순교 73주년을 맞아 (사)손양원목사정신문화계승사업회가 주관하여 손양원 목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용서를 넘어선 사랑〉이 여수공연에 이어 서울공연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 교회, 기관 단체가 후원하여 11월 2일(수) 오후 7시 우리 교회 베다니홀에서 막을 올렸다.

공연은 일제강점기 때 모진 압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반대하다가 옥살이도 하였고, 여수 애양원교회로 부임하여 한센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1948년 여순반란사건 때 전도한다는 이유로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양아들을 삼는 등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했던 사랑과 1950년 신앙을 지키며 공산당에 굴하지 않고 끝내 순교로 자신을 드렸던 손양원 목사의 희생의 일대기를 담았다.

이날 공연은 50여 명의 배우와 스탭이 순교자 손양원 목사의 신앙과 고귀한 삶을 그리며 그의 애국정신과 예수님의 사랑을 열연하여 깊은 감동을 주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2023 항존직 선거 안수집사 20명, 장로 13명 피택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행정장정 제34조(항존직 선거 4항) 규정과 당회결의에 의해 장로 20명과 안수집사 20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지난 11월 13일(1차 투표), 20일(2차 투표) 주일 오전 8시~오후 4시 20분에 50주년기념관 1층에서 실시하였다. 올해에는 1차 후보자는 후보자 공천순으로, 2차 후보자는 1차 투표 득표순으로 번호가 정해져 공보하였다. 투표는 전산개표방식(OMR)으로 진행하여 20일 주일 오후 4시20분 2차 투표 개표를 끝내고 찬양예배 후 당회를 거쳐 최종 피택자가 발표되었다.

장로피택자

이원상, 윤의성, 이명춘, 장세경, 정우영, 김홍범, 정성건, 이태성, 이일호, 박진배, 박형화, 안 칠, 정교순 (이상 13명)

안수집사 피택자

박홍기, 고정석, 조원형, 이주형, 신동헌, 주동면, 정재훈, 김우진, 이신일, 강기헌, 이준석, 이성치, 조형민, 지금용, 박석병, 류재원, 이용택, 박성준, 김신희, 이광소 (이상 20명)

미스바 성경연구원 〈책별 성경공부〉 강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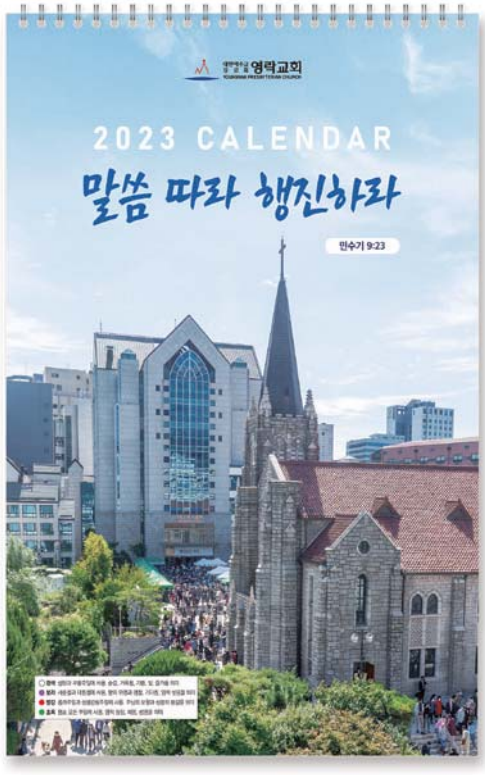
한경직 목사님이 초대 총장을 맡으셨던 한국미디어선교회는 1982년 11월에 세워진 기관으로 올해 40년이 되었다. 최근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함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 앱, 유튜브 등의 최신 미디어를 통해 성경공부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으며, 메타버스를 통한 바이블스터디 강좌를 개발하는 중에 있다. 현재는 영락교회의 김운성 목사가 이사장으로, 노영상 교수가 바이블아카데미의 총장으로, 그리고 최재덕 교수가 미스바성경연구원의 원장이다.

매주 성경의 한 권씩을 공부하는 과정으로 2년 정도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수업 과정이다. 1회차가 11월 4일에 끝났으며 2회차가 11월 17일부터 1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30분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진행된다.

문의 바이블아카데미 02)744-4237 **제공** 미스바 성경연구원

날짜	담당 교수	1교시(15:00-16:10)	2교시(16:20-17:30)
12월 1일	한동구 교수(평택대)	사무엘상 1	사무엘상 2
12월 8일	류호준 교수(백석대)	이사야 1	이사야 1
12월 15일	윤동녕 교수(서울장신대)	사사기 1	사사기 2
12월 22일	김동수 교수(평택대)	요한일서 1	요한일서 2
12월 29일	조태연 교수(호서대)	고린도전서 1	고린도전서 2
23년 1월 5일	김태훈 교수(한일장신대)	열왕기상 1	열왕기상 2

2023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 12월 2일부터 배부



홍보출판부(부장 양지청 장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한 것 같이 우리도 80주년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행진한다는 의지를 담은 교회표어 '말씀따라 행진하라 (민수기 9:23)' 에 맞추어 교인들의 '행진(March)'을 중심으로 2023년 교회 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달력의 사진은 교인의 다양한 활동을 밝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은혜로운 사진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월별로는 2월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등 젊은 세대의 찬양 사진 4장을 한 장으로 구성한 사진, 3월은 베다니광장에서 아동부 멜로디ON 공연 사진, 6월은 2022년 남선교회 체육대회의 줄다리기 사진, 7월은 여름 성경학교에서의 체조 사진, 9월은 2022년도 여전도회 주최 선교바자회 사진, 10월은 문화선교축제에서 위트니스 팀 뮤지컬 〈평양1866〉 공연 사진 등을 채택하였습니다. 새해 달력 디자인은 2022년도에 개발된 디자인을 계승하면서 사진 부분의 여백을 없애서 달력 사진의 크기를 소폭 키웠습니다.

새해 달력은 12월 2일(금요일)부터 각 구역별로 구역장 또는 구역봉사자 한 분이 대표 수령하여 배포 중에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교회달력이 한해 동안 영락의 각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그 쓰임이 다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달력 제작에 도움을 주신 홍보출판부의 여러 봉사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재 이주형 집사(홍보출판부 홍보분과위원장)

12월 목회력

2일(금	연합 및 금요권찰공부 하반기 종강
3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4일(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교회창립77주년, 임직식, 원포인트 교육주간
11일(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세례·입교식, 찬양예배 성찬, 제직회, 원포인트 교육주간
18일(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유아세례식, 사회봉사주일, 원포인트 교육주간
24일(토)	성탄절음악회
25일(주일)	전세대가 참여하는 성탄예배, 은퇴식, 심방준비회

※ 12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제자이름 맞추기

2022년 12월호 통권 586호

발 행 2022. 12. 1.
발 행 인 김운성
편 집 인 양지청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성수 김효진 나광호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인 미 임대현 정주리
교 열 계영희 이광미
발 행 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 자 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www.youngnakmn.net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앱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앱
아이폰용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미로찾기

영락화랑

참 빛(Origin-Harmony)

박은숙, 31.8×31.8cm, Mixed media on Canvas, 2020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9~13)